



**KIEP**

# 오늘의 세계경제

2020년 10월 19일 Vol. 20 No. 25

ISSN 1976-0515

## 2020 미 대선 분석과 정책 시사점

서진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 (jksuh@kiep.go.kr, Tel: 044-414-1156)

## 차 례

1. 미국 대통령 선거의 특징
2. 2016년 미 대선 결과 분석
3. 2020년 미 대선 관전 포인트
4. 정책 시사점

## 주요 내용

- ▶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통적인 양당제도 및 선거인단 독식제도로 인해 10개 미만 경합 주(州)의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음.
  - 지난 30년간의 미 대선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주에서 민주당 또는 공화당 지지세가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이에 소위 '스윙 스테이트'로 불리는 일부 주와 핵심 경합 주의 선거 결과가 대통령 당선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임.
  - 아울러 선거 당해의 1인당 GDP 등 경제상황의 호전이 현직 또는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음.
- ▶ 2016년의 미 대선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선거전략에 클린턴 후보의 전략적인 판단 실패가 더해져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기반이었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3개 주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1% 미만 박빙의 승부에서 패한 것이 클린턴 후보의 대선패배를 확정지었으며, 이는 민주당 지지성향의 소수 인종 및 젊은 유권자들을 민주당 지지 득표로 연계시키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음.
- ▶ 2020년 미 대선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으나, 당선에 필요한 결정적 메시지 부재 및 대중 갈등에 기초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지지층 결집효과 등으로 인해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여론조사 결과 격차,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 호소, 2018년 중간 선거에서의 민주당 주지사 득세, 우편투표의 상대적인 유리성,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상반기 경제상황의 저조 등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2016년 대선에서 빼앗긴 3개 주에서 민주당 지지성향의 소수 인종 및 젊은 유권자를 위한 바이든 후보의 분명한 메시지가 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갈등을 활용한 지지도 결집이 높은 득표율로 이어질 경우 2016년과 같은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 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및 민주당 신(新)행정부 출범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에 대비하여 대외 통상정책에서 국익에 기초한 중장기 원칙 정립이 긴요함.
  - 특히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바이든 신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기존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중국 압박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의 전략적 모호성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국익에 기초한 중장기 원칙 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 1. 미국 대통령 선거의 특성

■ 미 대통령 선거는 10개 이하 주(州)의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 건국 이후 지금까지 계속된 공화·민주 양당체제의 유지로 인해 각 당은 전통적인 고정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음.
- 지난 20년(1996~2016) 동안 여섯 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앨라배마, 조지아, 텍사스, 유타 등 중남부 16개 주에서는 항상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으며, 반대로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 등 15개 주에서는 항상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상당한 격차로 이겼음.
- 총 6번의 대통령 선거 중 5번 같은 당을 지지한 주까지 고려하면 공화당 지지성향의 주는 최대 24개로 2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민주당 지지성향은 최대 21개 주로 25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음(표 1 및 그림 1 참고).

표 1. 공화, 민주 양당의 전통적인 지지 주(주)와 해당 선거인단 수

구분		주
공화당 (24개 주, 206명)	6번 모두 지지 (16개 주, 132명)	앨라배마(9), 알래스카(3), 조지아(16), 아이다호(4), 캔자스(6), 켄터키(8), 루이지애나(8), 미시시피(6), 몬태나(3), 노스다코타(3), 오클라호마(7), 사우스캐롤라이나(9), 사우스다코타(3), 텍사스(38), 유타(6), 와이오밍(3)
	6번 중 5번 지지 (8개 주, 74명)	애리조나(11), 아칸소(6), 인디애나(11), 미주리(10), 네브래스카(5), 노스캐롤라이나(15), 테네시(11), 웨스트버지니아(5)
민주당 (20개 주+DC, 251명)	6번 모두 지지 (14개 주+DC, 192명)	캘리포니아(55), 코네티컷(7), 델라웨어(3), DC(3), 하와이(4), 일리노이(20), 메릴랜드(10), 매사추세츠(11), 미네소타(10), 뉴저지(14), 뉴욕(29), 오리건(7), 로드아일랜드(4), 버몬트(3), 워싱턴(12)
	6번 중 5번 지지 (6개 주, 59명)	메인(4), 미시간(16), 뉴햄프셔(4), 뉴멕시코(5), 펜실베이니아(20), 위스콘신(10)

주: ( ) 안은 해당 주의 선거인단 수.

자료: 위키백과,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2016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을 기초로 저자 작성.

- 그러나 공화, 민주 어느 당도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과반의 선거인단(270명)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통상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라 불리는 6개 주에 박빙의 차이로 승리가 결정되는 3개 주를 더해 약 80~130명의 선거인단을 두고 양당이 겨루는 양상을 보여왔음.

※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는 콜로라도(9), 플로리다(29), 아이오와(6), 네바다(6), 오하이오(18), 버지니아(13) 등 6개 주임.
- 단 2016년 대선의 경우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기반이었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3개 주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음.

그림 1. 1996~2016년 미 대통령 선거 결과(적색은 공화당, 청색은 민주당 승리)

주	선거인단	1996	2000	2004	2008	2012	2016	성향
앨라배마 (AL)	9	RR	RR	RR	RR	RR	RR	RR
알래스카 (AK)	3	RR	RR	RR	RR	RR	RR	RR
애리조나 (AZ)	11	R	RR	RR	RR	RR	RR	R
아칸소 (AR)	6	R	RR	RR	RR	RR	RR	R
캘리포니아 (CA)	55	DD	DD	DD	DD	DD	DD	DD
콜로라도 (CO)	9	S	RR	RR	DD	DD	DD	S
코네티컷 (CT)	7	DD	DD	DD	DD	DD	DD	DD
델라웨어 (DE)	3	DD	DD	DD	DD	DD	DD	DD
DC (DC)	3	DD	DD	DD	DD	DD	DD	DD
플로리다 (FL)	29	S	RR	RR	DD	DD	RR	S
조지아 (GA)	16	RR	RR	RR	RR	RR	RR	RR
하와이 (HI)	4	DD	DD	DD	DD	DD	DD	DD
아이다호 (ID)	4	RR	RR	RR	RR	RR	RR	RR
일리노이 (IL)	20	DD	DD	DD	DD	DD	DD	DD
인디애나 (IN)	11	R	RR	RR	DD	DD	RR	R
아이오와 (IA)	6	S	DD	DD	DD	DD	DD	S
캔자스 (KS)	6	RR	RR	RR	RR	RR	RR	RR
켄터키 (KY)	8	RR	RR	RR	RR	RR	RR	RR
루이지애나 (LA)	8	RR	RR	RR	RR	RR	RR	RR
메인* (ME)	4	D	DD	DD	DD	DD	DD	D
메릴랜드 (MD)	10	DD	DD	DD	DD	DD	DD	DD
매사추세츠 (MA)	11	DD	DD	DD	DD	DD	DD	DD
<b>미시간 (MI)</b>	<b>16</b>	D	DD	DD	DD	DD	DD	<b>D</b>
미네소타 (MN)	10	DD	DD	DD	DD	DD	DD	DD
미시시피 (MS)	6	RR	RR	RR	RR	RR	RR	RR
미주리 (MO)	10	R	RR	RR	RR	RR	RR	R
몬태나 (MT)	3	RR	RR	RR	RR	RR	RR	RR
네브래스카* (NE)	5	R	RR	RR	DD	DD	DD	R
네바다 (NV)	6	S	RR	RR	DD	DD	DD	S
뉴햄프셔 (NH)	4	D	DD	DD	DD	DD	DD	D
뉴저지 (NJ)	14	DD	DD	DD	DD	DD	DD	DD
뉴멕시코 (NM)	5	D	RR	RR	DD	DD	DD	D
뉴욕 (NY)	29	DD	DD	DD	DD	DD	DD	DD
노스캐롤라이나 (NC)	15	R	RR	RR	DD	DD	DD	R
노스다코타 (ND)	3	RR	RR	RR	RR	RR	RR	RR
오하이오 (OH)	18	S	RR	RR	DD	DD	DD	S
오클라호마 (OK)	7	RR	RR	RR	RR	RR	RR	RR
오리건 (OR)	7	DD	DD	DD	DD	DD	DD	DD
<b>펜실베이니아 (PA)</b>	<b>20</b>	D	DD	DD	DD	DD	DD	<b>D</b>
로드아일랜드 (RI)	4	DD	DD	DD	DD	DD	DD	DD
사우스캐롤라이나 (SC)	9	RR	RR	RR	RR	RR	RR	RR
사우스다코타 (SD)	3	RR	RR	RR	RR	RR	RR	RR
테네시 (TN)	11	R	RR	RR	RR	RR	RR	R
텍사스 (TX)	38	RR	RR	RR	RR	RR	RR	RR
유타 (UT)	6	RR	RR	RR	RR	RR	RR	RR
버몬트 (VT)	3	DD	DD	DD	DD	DD	DD	DD
버지니아 (VA)	13	S	RR	RR	DD	DD	DD	S
워싱턴 (WA)	12	DD	DD	DD	DD	DD	DD	DD
웨스트버지니아 (WV)	5	R	RR	RR	RR	RR	RR	R
<b>위스콘신 (WI)</b>	<b>10</b>	D	DD	DD	DD	DD	DD	<b>D</b>
와이오밍 (WY)	3	RR	RR	RR	RR	RR	RR	RR
계	538	민주	공화	공화	민주	민주	공화	

주: 1) RR(DD)은 6번 모두 공화당(민주당) 승리, R(D)는 6번 중 5번이 공화당(민주당) 승리, S는 그 외, 2) 선거인단 수는 최근 연도 기준.  
자료: 위키미디어, 1996~2016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을 기초로 저자 작성.

■ 미 대통령 선거는 선거 당해연도 1인당 GDP 증가율이 직전 연도보다 높을 경우 현직 대통령 또는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을 보임.

- 1980~2016년간 10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당해연도 1인당 GDP 증가율이 직전 연도에 비해 높았을 경우 모두 현직 대통령(또는 기존 여당 후보가)이 재선(당선)되었음(표 2 참고).
  - 집권기간 전체보다 선거 당해의 경제상황이 전년에 비해 좋아졌다는 것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 자료는 없으나, 이러한 경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임.
- 유일한 예외 사례는 1992년 대선 결과이나, 이는 당시 제3당 후보로 출마해 18.9%라는 유례없는 전국 득표율을 올린 무소속의 페로(Ross Perot) 후보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18.9%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올린 무소속 페로 후보가 공화당(현직) 부시 대통령(37.4%)과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43.0%) 경합 주에서 공화당 표를 잠식한 것이 부시 대통령의 패배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음. 당시 부시 대통령은 1936년 대선 이후 공화당 후보로서는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였음.

표 2. 선거 당해 1인당 GDP 증가율과 대선 결과

연도	전년대비 1인당 GDP 증가율(%)	전년 대비	공화당 후보	민주당 후보	대선 결과	비고
1979	2.03					
1980 대선	△1.21	하락	레이건	카터(현직)	공화당 승리	현직 불리
1983	3.63					
1984 대선	6.31	상승	레이건(현직)	먼데일	공화당 승리	현직 유리
1987	2.54					
1988 대선	3.24	상승	부시(여당)	듀카키스	공화당 승리	여당 유리
1991	△1.43					
1992 대선	2.10	상승	부시(현직)	클린턴	민주당 승리 (예외)	제3후보의 높은 득표율(18.9%)
1995	1.47					
1996 대선	2.57	상승	돌	클린턴(현직)	민주당 승리	현직 유리
1999	3.56					
2000 대선	2.98	하락	부시	고어(여당)	공화당 승리	여당 불리
2003	1.98					
2004 대선	2.84	상승	부시(현직)	케리	공화당 승리	현직 유리
2007	0.91					
2008 대선	△1.08	하락	메게인(여당)	오바마	민주당 승리	여당 불리
2011	0.82					
2012 대선	1.51	상승	롬니	오바마(현직)	민주당 승리	현직 유리
2015	2.13					
2016 대선	0.84	하락	트럼프	클린턴(여당)	공화당 승리	여당 불리

자료: 1인당 GDP 증가율은 World Bank 자료임(<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  
대선 결과는 위키미디어, 1980~2016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을 기초로 저자 작성.

## 2. 2016년 미 대선 결과 분석

■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패배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기반이었던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3개 주에서의 예상 외 박빙의 패배가 결정적이었다고 판단됨.

- 클린턴 후보의 패배 원인으로 ① 대선 직전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의 클린턴 개인 이메일 문제점 발표 ② 백인 육체노동 근로자의 지지세 확보 실패(특히 rust-belt 지역에서) ③ 소수 인종 및 젊은 유권자들의 비호감 ④ 기타 경제문제(특히 일자리)에 대한 불분명한 메시지 ⑤ 상대적인 엘리트 의식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음.<sup>1)</sup>
  - 아울러 클린턴 후보의 도덕성 문제, 특히 정직이나 신뢰 등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으며, 클린턴재단의 의혹과 단기간 거액의 선거자금 모금 등도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알려져 있음.
- 그중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3개 주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박빙으로 당시 트럼프 후보에게 패배한 것이 핵심 원인으로 분석됨.
  -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는 캘리포니아와 함께 전통적인 민주당 고정 지지기반으로, 지난 1992년 대선부터 2012년 대선까지 6번의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주임(표 3 및 그림 2 참고).
  - 그러나 2016년 선거에서는 불과 0.2~0.8%라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게 패배해 46명의 선거인단을 빼앗겼으므로써 클린턴 후보의 대선 패배를 확정짓는 결정적 요인이 됨.
    - ※ 미시간은 0.23%(10,704표), 펜실베이니아 0.72%(44,292표), 위스콘신은 0.77%(22,748표)의 차이로 클린턴 후보가 패함. 이는 클린턴 후보가 얻은 해당 주의 총 득표수(미시간 2,268,839표, 펜실베이니아 2,926,441표, 위스콘신 1,382,536표)의 0.5~1.6%에 불과한 수준임.

표 3. 핵심 3개 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득표율(1992~2016)

(단위: %, %p)

연도	미시간(16)			펜실베이니아(20)			위스콘신(10)		
	민주(A)	공화(B)	차이(A-B)	민주(A)	공화(B)	차이(A-B)	민주(A)	공화(B)	차이(A-B)
1992	43.77	36.38	7.39	45.13	36.13	9.00	41.13	36.18	4.95
1996	51.69	38.48	13.21	49.17	39.97	9.20	48.81	38.48	10.33
2000	51.28	46.15	5.13	50.60	46.43	4.17	47.83	47.61	0.22
2004	51.23	47.81	3.42	50.92	48.42	2.50	49.70	49.32	0.38
2008	57.43	40.96	16.47	54.49	44.17	10.32	56.22	42.31	13.91
2012	54.21	44.71	9.50	51.97	46.59	5.38	52.83	45.89	6.94
2016	47.27	47.50	△0.23	47.46	48.16	△0.72	46.45	47.22	△0.77

주: ( ) 안은 해당 주의 선거인단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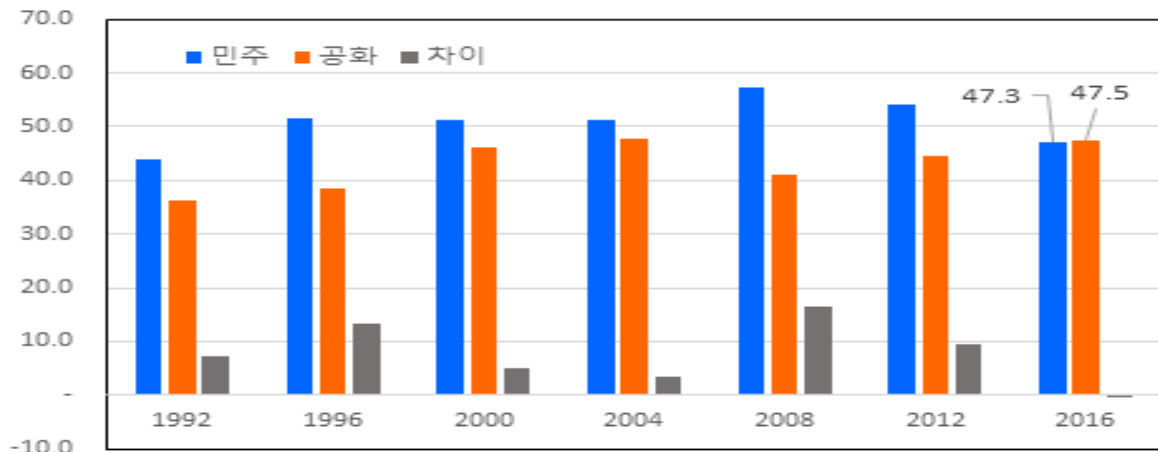
자료: 위키미디어, 1992~2016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in Michigan, Wisconsin, Philadelphia를 기초로 저자 작성.

1) The Atlantic(2016. 11. 15), The Guardian(2016. 11. 9), Maitreesh Ghatak(2017), "Understanding why Hillary Clinton lost the election," LSE US Centre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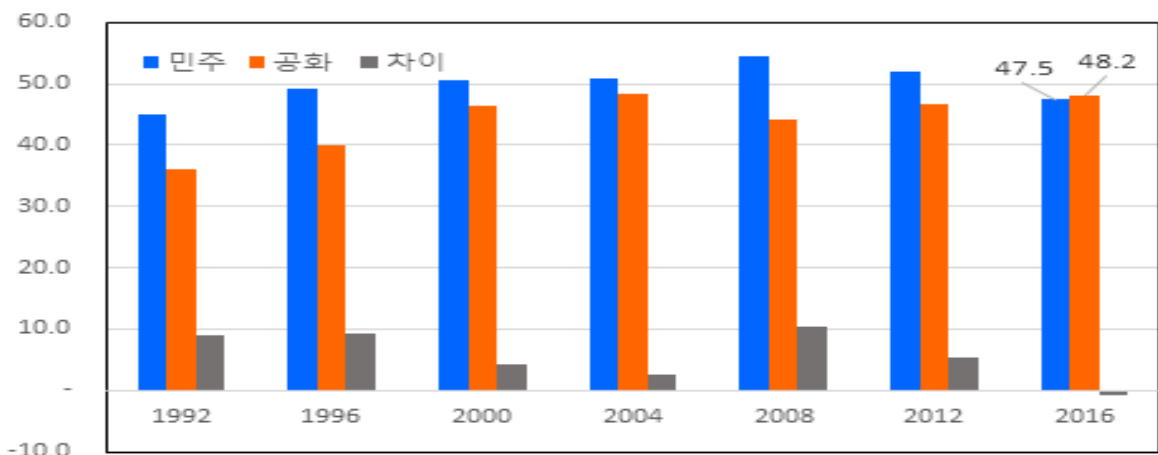
그림 2. 1992~2016년 미 대선에서 양당의 득표율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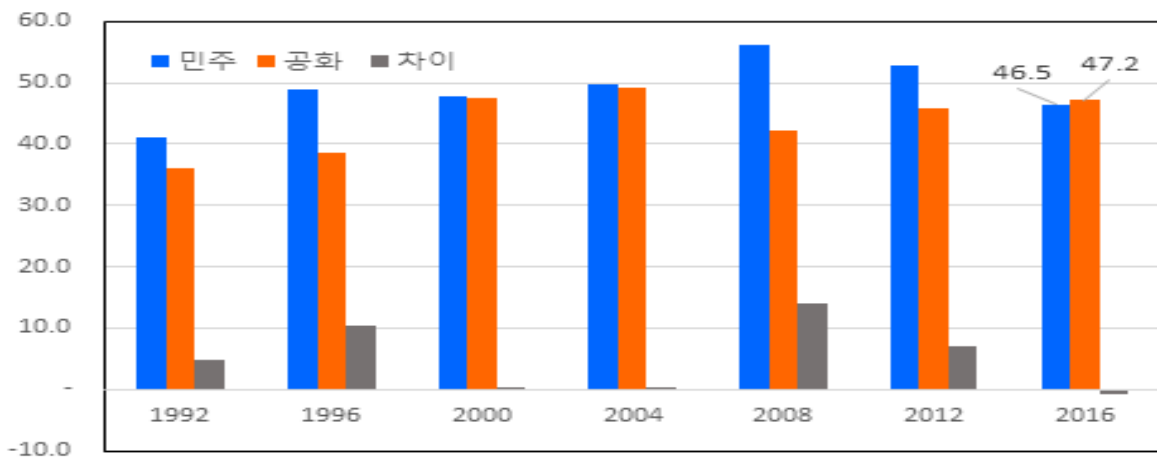
<미시간 주>



<펜실베이니아 주>



<위스콘신 주>



자료: 위키미디어, 1992~2016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in Michigan, Wisconsin, Philadelphia를 기초로 저자 작성.

- 만일 민주당이 위 3개 주에서 박빙으로나마 이겼다면 클린턴 후보가 근소하게 과반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표 4 참고).
-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는 30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된 반면, 클린턴 후보는 22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데 그침. 만일 클린턴 후보가 위의 3개 주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이겼더라면 46명의 선거인단을 추가, 총 27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함으로써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음.

표 4. 2016년 핵심 3개 주<sup>1)</sup>의 대선 후보별 선거인단 확보 수

구분	실제 2016년 대선 결과	3개 주에서 클린턴 후보가 승리했을 경우	비고
트럼프 후보	304	258 (= 304 - 46)	46 감소
클린턴 후보	227	273 (= 227 + 46)	46 증가
기타 <sup>2)</sup>	7	7	
계	538	538	

주: 1) 3개 주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주를 의미.

2) 흔히 '신뢰할 수 없는 선거인단(faithless elector)'이라고 하며, 당초 투표하기로 한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

2016년 대선에서 7명이 민주당 또는 공화당 이외 후보에게 투표했으며, 역사적으로 2016년 대선까지 총 163명의 신뢰할 수 없는 선거인단이 있었음.

자료: 위키미디어, 2016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을 이용해 저자 작성.

- 결국 트럼프 후보의 '위대한 미국 재건' 열풍이 불어 클린턴 후보가 대부분의 스윙 스테이트에서 패했고 해도 전통적 민주당 지지기반이었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3개 주에서 기존 지지세를 유지했다면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판단됨.

■ 3개 주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소수 인종 및 젊은 유권자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과 변화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그들의 민주당 지지성향을 클린턴 후보에 대한 투표로 연결시키지 못한 데 기인함.

※ 여기서 소수 인종은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 기타 등 非백인(non white)을 의미함. 이들은 2016년 대선에서 총 투표율의 약 30%를 차지하였음.

- 2012년과 2016년 미 대선 투표 성향을 비교하면 소수 인종(흑인, 히스패닉, 아시안)의 민주당에 대한 투표율이 낮아진 반면 제3당에 대한 투표율은 증가하였음(표 5, 그림 3, 그림 4 참고).

※ 여기서 제3당이란 공화당 및 민주당 이외의 소수 정당 또는 무소속을 의미함. 미국의 전통적인 소수 정당은 자유(의지)당(Libertarian Party), 녹색당(Green Party), 헌법당(Constitution Party) 등이 있으며, 이들 정당도 매 대선마다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내고 대선 경쟁에 나서고 있음.

- 소수 인종 유권자들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반대했지만,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도 결코 호감을 갖지 못했음. 클린턴 후보는 이들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열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엘리트·기득권층으로 비추어져 이들이 클린턴 후보를 신뢰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민주당은 이들이 트럼프 후보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이들 중 상당수는 제3당을 지지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아 민주당 득표로 연결되지 않았음.



- 소수 인종 중 흑인 유권자의 경우 2012년 민주당에 투표한 비율이 93%에 달했으나 2016년에는 88%로 5%p 하락했으며, 반대로 제3당에 투표한 비율은 2012년 1%에서 4%로 상승해 3%p 증가하였음.
- 여타 소수 인종의 투표 성향도 흑인과 대동소이함.

표 5. 인종별 민주당 및 제3당에 투표한 비율의 변화(2012년 vs 2016년)

(단위: %, %p)

구분	민주당			제3당		
	2012 (A)	2016 (B)	차이(B-A)	2012(A)	2016(B)	차이(B-A)
백인(72)	39	37	△2	2	5	3
흑인(12)	93	88	△5	1	4	3
아시아(4)	73	65	△8	1	6	5
기타(3)	58	56	△2	4	7	3
히스패닉(11)	71	65	△6	2	6	4

자료: Edison Research에 의한 각 대선 연도별 출구조사 결과 인용. 위키미디어, 2016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그림 3. 인종별 민주당에 투표한 비율의 변화(2012년 vs 2016년)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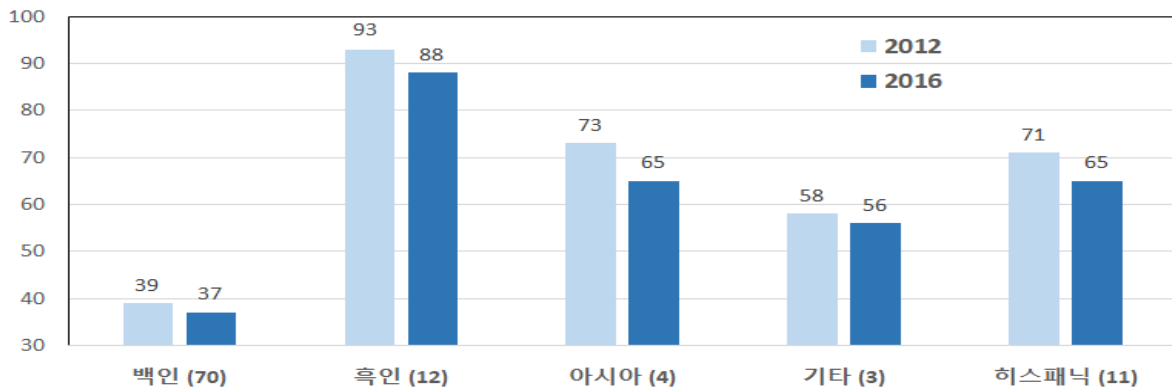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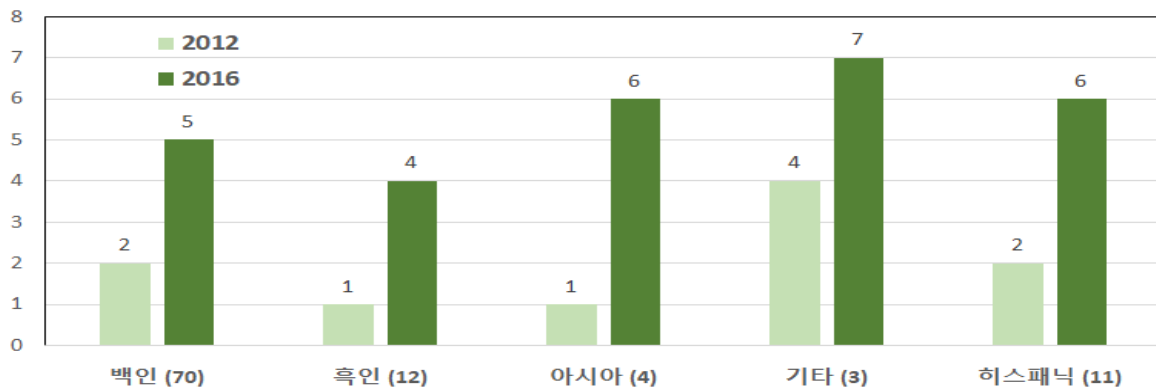


그림 4. 인종별 제3당에 투표한 비율의 변화(2012년 vs 2016년)



자료: Edison Research에 의한 각 대선 연도별 출구조사 결과 인용. 위키미디어, 2016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 기득권층의 탐욕을 비판하고 사회의 구조적 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한 민주당 지지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도 클린턴 후보에게 비호감불신을 느껴 소수 인종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투표하는 대신 제3당에 투표를 하거나 투표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임.
- 특히 민주당 내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를 지지하였던 개혁주의 성향의, 도시 거주 젊은 유권자들은 투표 직전까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클린턴 후보의 우세로 나오자 투표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추측됨.

표 6. 연령별 민주당 및 제3당에 투표한 비율의 변화(2012년 vs 2016년)

(단위: %, %p)

구분	민주당			제3당		
	2012 (A)	2016 (B)	차이 (B-A)	2012 (A)	2016 (B)	차이 (B-A)
18~24세(11)	60	56	△4	4	9	5
25~29세(08)	60	53	△7	2	8	6
30~39세(17)	55	51	△4	3	9	6
40~49세(20)	48	46	△2	2	4	2
50~64세(28)	47	44	△3	1	3	2
65세 이상(16)	44	45	1	0	2	2

주 : 제3당은 공화당과 민주당 이외 자유(의지)당 및 녹색당, 헌법당 등 소수 정당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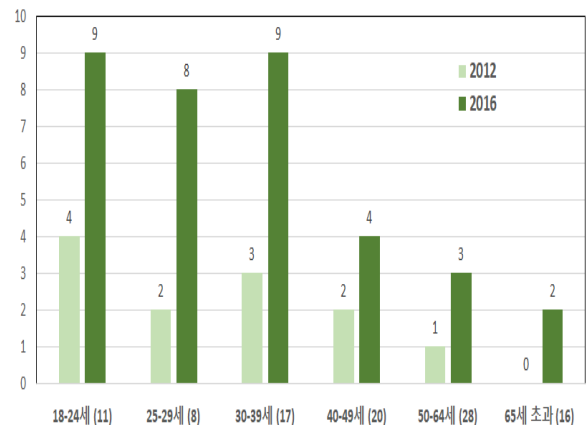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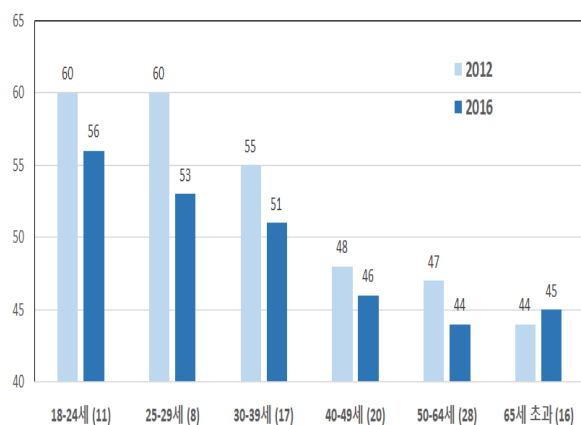
자료: Edison Research에 의한 각 대선 연도별 출구조사 결과 인용. 위키미디어, 2016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그림 5. 연령별 민주당 및 제3당에 투표한 비율의 변화(2012년 vs 2016년)

(단위: %, %p)

〈민주당 투표〉

〈제3당 투표〉



제3당은 공화당과 민주당 이외 자유(의지)당 및 녹색당, 헌법당 등 소수 정당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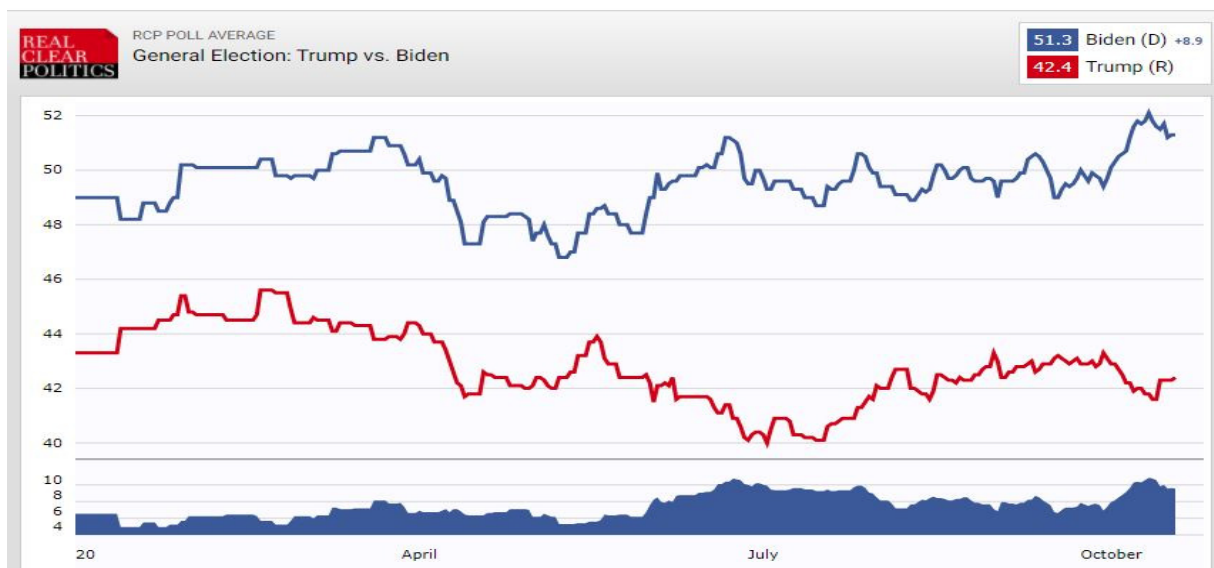
자료: Edison Research에 의한 각 대선 연도별 출구조사 결과. 위키미디어, 2016 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 결국 2016년 대선은 트럼프 후보의 백인 육체 근로자의 표심을 파고든 성공적인 선거전략 못지않게 클린턴 후보의 민주당 지지성향의 소수 인종 및 젊은 유권자들을 투표로 연결시키지 못한 실패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3. 2020년 미 대선 관전 포인트

- 최근까지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은 사실이나, 2016년 대선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여론조사만으로 당락을 전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2020년 10월 18일 기준 전국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평균적으로 9%p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남.
- RCP(Real Clear Politics)에 따르면 10월 4일~10월 17일 여론조사의 경우 바이든 후보가 5~12%p 앞서 있는 가운데, 6월 23일 최고 10.2%p 격차 이후 9월 17일 5.8%p까지 격차가 줄어들었다가 10월 12일 10.2%p로 정점을 찍고 다시 8~9%p대까지 다소 축소되는 추세임.

그림 6. 2020년 미 대선 여론조사 결과(2020. 10. 18. 기준)



자료: RCP(Real Clear Politics) Poll, National Average 화면 캡처([https://www.realclearpolitics.com/epolls/latest\\_polls/](https://www.realclearpolitics.com/epolls/latest_polls/)(검색일: 2020. 10. 18)).

- 다만 핵심 주나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혼전, 또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음.
-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핵심 3개 주에서는 약 5~7%p대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스윙 스테이트인 플로리다 1.4%p로 박빙이며, 오히려 0.5%p 뒤져 혼전 양상을 보임.
- 특히 핵심 3개 주에서는 2016년과 2020년 여론조사 결과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만으로 대통령 당선의 핵심 지역이자 지난 대선에서 공화당에 표심을 빼앗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주를 민주당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함.
- 3개 주 여론조사 결과, 2016년 같은 시기에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6.8~8.6%p 앞서고 있었으며, 이는 2020년 현재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는 것과 유사함.
- 다만 클린턴 후보의 경우 10월 중순 이후 투표 직전까지 이들 3개 주에서의 지지율 격차가 급속히 좁혀졌으며, 따라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투표일 직전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임.

표 7. 특정 5개 주의 2016년 및 2020년 여론조사 결과

(단위: %, %p)

구분	주	2020년 여론조사 (2020. 10. 16 기준)			2016년 여론조사 (2016. 10. 16 기준)			2016 대선 결과
		바이든 (A)	트럼프 (B)	차이 (A-B)	클린턴 (A)	트럼프 (B)	차이 (A-B)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단 2016년 공화당 승리)	펜실베이니아 (20)	49.9	44.3	5.6	47.7	40.7	7.0	트럼프 +0.7
	위스콘신* (10)	49.9	43.6	6.3	44.5	37.8	7.0	트럼프 +0.7
	미시간 (16)	50.1	42.9	7.2	44.0	33.3	10.7	트럼프 +0.3
전통적인 스윙 스테이트	플로리다 (29)	48.2	46.8	1.4	47.0	43.5	3.5	트럼프 +1.2
	오하이오 (18)	46.0	46.5	△0.5	45.8	45.0	0.8	트럼프 +8.1

주: \* 10월 12일 기준.

자료: RCP(Real Clear Politics), [https://www.realclearpolitics.com/epolls/latest\\_polls/](https://www.realclearpolitics.com/epolls/latest_polls/)(검색일: 2020. 10. 11).

■ 바이든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잃은 민주당 지지기반 3개 주에서의 탈환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 지지성향의 소수 인종 및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민주당 득표로 연결시켜야 함.

-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기반을 확실히 지킨다는 전제하에 소위 스윙 스테이트에서 현재의 여론조사 격차를 유지하면서 그중 일부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겨야 함.
  - 앞선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확실히 사수할 경우 25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19명의 선거인단을 추가하기 위하여 6개 스윙 스테이트인 콜로라도(9), 플로리다(29), 아이오와(6), 네바다(6), 오하이오(18), 버지니아(13) 중 플로리다 주에서 승리하든지 또는 오하이오 내지 버지니아 이외 다른 한 개 주에서 승리하면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됨(표 8 참고).
- 그러나 만일 2016년 대선에서처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3개 주에서 패배할 경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스윙 스테이트 6개 주 대부분에서 승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함.
  - 2016년 대선과 같이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미시간에서 패하면 대통령 당선을 위해 추가 65명의 선거인단이 필요하고, 이를 만회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스윙 스테이트 전체를 이겨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 즉 플로리다, 오하이오, 버지니아의 선거인단이 많기 때문에 6개 스윙 스테이트 가운데 플로리다 또는 오하이오 중 어느 한 주에서라도 바이든 후보가 지면 선거인단 과반 확보가 불가능함. 또한 버지니아에서 지면 나머지 5개 주 전체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겨야만 선거인단 과반 확보가 가능해짐.
  - 그러나 Rust-Belt 지역에 있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 패할 경우 그 여파가 인근 스윙 스테이트까지 미쳐 스윙 스테이트 대부분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기대하기는 무리일 것임.

표 8.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 필요한 선거인단 수

구분	확보된 선거인단 수 (A)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추가 선거인단 수 (B=270-A)	스윙 스테이트 선거인단 수 (81)	당선되기 위해 승리해야 할 주 또는 경우
전통적 민주당 지지기반을 확실히 수성할 경우	전통적 지지기반 (20개 주+DC)	251	19	콜로라도(9)	1. 플로리다 2. 오하이오 + 다른 1개 주 3. 버지니아 + 다른 1개 주 4. 3개 주 이상이면 승
				플로리다(29)	
				아이오와(6)	
2016년과 같이 3개 주에서 패할 경우	17개 주 +DC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패)	205	65	네바다(6)	1. 플로리다, 오하이오 중 어느 한 주에서라도 지면 패 2. 버지니아에서 지면 다른 5개 주 모두에서 이겨야 승 3. 플로리다, 오하이오, 버지니아 + 추가 1개 주에서 이겨야 승
				오하이오(18)	
				버지니아(13)	

주: 민주당이 3개 주에서 모두 이기거나 지는 경우가 아닌 부분적으로 이기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것임.  
자료: 저자 작성.

- 결국 바이든 후보나 트럼프 대통령 모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기반이었다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박빙의 승리를 안겨 주었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3개 주에서의 승리가 절실할 것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지역의 소수 인종 및 젊은 유권자들의 개혁과 변화의 요구를 포용할 만한 바이든 후보의 확실한 메시지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젊은 유권자들에게 바이든 후보는 2016년 대선에서의 클린턴 후보와 유사하게 부분적으로나마 기득권층의 인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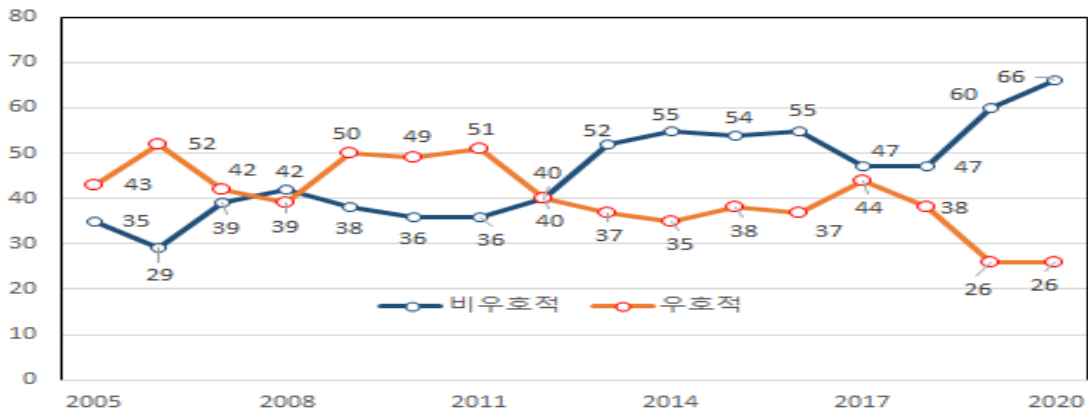
- 바이든 후보는 환경이나 노동 등의 분야에서는 과감한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젊은 유권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정책이 없음.
- 또한 블루칼라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지난 40여 년간 상원의원과 부통령을 지낸 경력으로 변화를 원하는 소수 인종과 젊은 유권자의 눈에는 기득권층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음.
- 이에 민주당도 이들 지역의 소수 인종 및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음.
  - 전임 오바마 대통령 내외가 흑인 등 소수 인종의 바이든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며, 개혁 성향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샌더스 당내 경선자 역시 클린턴 후보 때와 달리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며 애쓰고 있음.
  - 부통령 후보로 미 역사상 최초로 흑인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지명한 것도 소수 인종에 대한 득표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들 소수 인종과 젊은 유권자를 향한 바이든 후보의 메시지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임. 아울러 고령의 이미지와 함께 선거유세에서 계속되는 말실수 등으로 인해 대통령으로서의 강력한 카리스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뒤쳐진 여론조사 결과를 만회하고, 이를 자신의 득표로 연결시키기 위해 핵심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자들의 결집을 촉구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의 대중국 인식이 역사상 최고로 악화된 상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자신이 아닌 중국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러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같은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지지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음.
- 미 국민의 중국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중국을 우호적이라고 보는 비중이 2011년 51%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9년부터 26%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반대로 중국을 우호적이지 않다고 보는 비율은 계속 증가해 2020년 66%에 이르고 있음.

그림 7. 미 국민의 대중국 인식 조사(2020. 3. 기준)

(단위: %)



자료: Pew Research Center(2020. 4. 17), U.S. Views of China Increasingly Negative Amid Coronavirus Outbreak.

■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우편투표 실시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게 일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10월 12일 기준으로 2020년 대선에 한해 우편투표의 요건을 완화하여 확대한 주는 23개 주와 DC이며, 여전히 종전과 동일한 우편투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주는 나머지 27개 주임.
- 2020년 대선에 한해 우편투표 요건을 완화하거나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보내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를 긴급 변경한 23개 주는 대부분 기존 공화당 또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고수해온 주로, 우편투표의 확대로 이들 주의 지지 정당이 바뀔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음.
- 우편투표 요건의 완화로 지지 정당에 대한 득표율이 올라갈 수는 있으나 선거인단 수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함. 즉 앨라배마(AL)가 이번 선거에 한해 우편투표 요건을 완화해 우편투표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도 이로 인해 앨라배마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임.
- 다만 2016년 대선에서 박빙의 차이를 보였던 일부 주에서는 우편투표의 확대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위스콘신 주가 이에 해당함. 아울러 우편투표제에 변화가 없는 주라고 해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우편투표를 선호함으로써 민주당 득표율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 역시 경합이 예상되는 주에서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표 9. 2020년 11월 선거의 우편투표 확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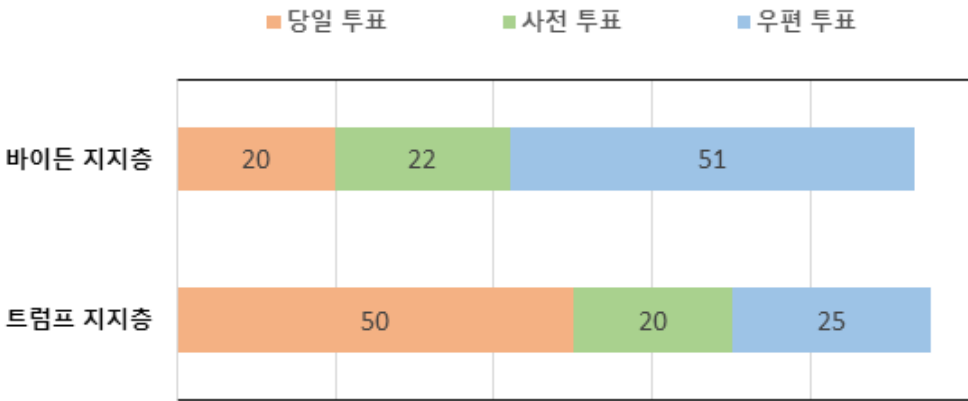
구분	우편투표 시 요건 필요 (코로나19 불인정)			우편투표 시 (필요 요건 삭제 및 코로나19 인정)			우편투표 (메일 신청 가능)			우편투표 선택 (투표용지 메일로 배달)		
	공화	민주	중도	공화	민주	중도	공화	민주	중도	공화	민주	중도
우편투표 확대 주				AL	NY	NH	IA	CT	AZ		CA	NV
				AR			NE	DE	MN		DC	
				KY				IL	WI		NJ	
				MO				MD			VT	
				SC				MA				
				WV				RI				
우편투표 불변 주	IN			AK	NM	FL	OH			UT	HI	CO
	LA			GA	VA	ME					OR	
	MS			ID		MI					WA	
	TN			KS		NC						
	TX			MT		PA						
				ND								
				OK								
				SD								
				WY								

주: 공화와 민주는 2016년 대선에서 각각 5% 이상의 격차로 해당 당이 승리한 주로 각각 적색, 청색, 중도는 5% 이내 격차로 주로 녹색으로 표시함.  
각주를 나타내는 영문 두 글자의 의미는 [그림 1]을 참고.

자료: Kate Rabinowitz and Brittany Renee Mayes, "At least 84% of American voters can cast ballots by mail in this fall," *The Washington Post*(2020. 9. 25)에서 재인용.

- 특히 양당 후보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플로리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주에서의 우편투표율 상승은 민주당 지지층의 높은 우편투표 선호도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그림 8 참고).
  - ※ 우편투표에 대한 선호는 바이든 후보 지지자가 트럼프 후보 지지자에 비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현장투표에 대한 선호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에 비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Pew Research Center 조사 결과).
- 다만 민주당 지지성향의 유권자가 공화당 지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편투표를 선호하고, 또한 우편투표제가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민주당 득표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는 민주당 지지성향의 유권자라고 해도 2016년과 같이 바이든 후보가 충분한 개혁 성향을 보이지 않을 경우 제3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있기 때문임.
- 한편 2020년 2/4분기 실질GDP가 전년대비 마이너스 30%를 기록해 2020년 1인당 GDP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하락할 것이 확실시 되는 점은 비록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그림 8. 당일 현장투표, 사전투표, 우편투표에 대한 유권자 선호도 조사 결과



자료: Amid Campaign Turmoil, Biden Holds Wide Leads on Coronavirus, Unifying the Country(2020. 10. 9), Pew Research Center 재인용(<https://www.pewresearch.org/politics/2020/10/09/voter-engagement-and-interest-voting-by-mail-and-in-person/>).

- 결국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선을 위한 마지막 허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되며, 바이든 후보가 이를 넘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 투표 직전까지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바이든 후보가 향후 2주간 지지율 격차를 유지하며, 소수 인종과 젊은 유권자들의 민주당 지지성향을 득표로 연결하는 데 성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에 관계없이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될 전망이다.
-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머뭇거리는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뒤쳐진 여론조사 결과를 만회하여 핵심 경합 주를 중심으로 지지자들의 결집을 득표로 연결시킬 경우 2016년 대선과 같은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결국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핵심 3개 주에서 민주당 지지성향의 유권자들을 어떻게 민주당 득표로 연결시킬 것인지가 2020년 미 대선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자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임.<sup>2)</sup>

#### 4. 정책 시사점

- 2020년 미 대선 결과 전망에 기초할 때 민주당 바이든 신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이 높으나,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두 가지 경우 모두를 상정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2) 우편투표 확대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다양한 정치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는 이를 논외로 함. 아울러 지난 대선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전투표로 인해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이 예상되고 있는바, 실제 우편투표율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봄. 그러나 선거 불복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은 물론 세계에 불확실성을 심화시켜 경제성장 및 무역에 상당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1) 트럼프 제2기 행정부 출범 시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대외정책은 큰 변화 없이 1기의 정책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중국과의 갈등은 일시적으로 지금보다 다소 완화될 수 있음.
  - 현 시점에서의 미·중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선거전략상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재선에 성공할 경우 대중 관계에서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중국과의 갈등 심화가 결코 유리한 것만은 아님.
  - 따라서 제1단계 무역합의 이행과 성과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채찍을, 다른 한편으로는 당근을 제공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공과 유화, 병행전략을 취할 가능성은 충분함.
- 그렇다고 해도 미·중 갈등은 패권경쟁의 속성상 증장기적으로 점차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난 5월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음.<sup>3)</sup>
  - 동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 도전을 넘어 서구 세계와 이념 및 체제 경쟁에 돌입해 미국의 근본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미·중 관계를 ‘상이한 두 체제간의 장기적·전략적 경쟁(the 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wo system)’으로 규정하여 범정부적으로 본격 대응을 할 것임을 언급함.
  - 아울러 중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선택적이고 성과 지향적으로 개입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그에 상응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향후 중국과의 합의에서 엄격한 검증 및 강제이행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다소 부침은 있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공세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증장기적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격화될 것은 확실해 보임.
- 다자통상에서도 WTO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계속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이상 WTO 다자통상체제는 상당기간 현재와 같은 상태가 계속될 것임.
  - 중국의 국영기업을 통한 산업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관행 등에 대한 WTO의 제재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 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WTO 체제가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한 WTO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WTO 다자통상체제의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에 우리나라도 상소기능이 정지된 반쪽자리 WTO 다자통상체제에 적합한 대응준비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대북 관계에 공을 들여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2기 행정부 기간 동안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때 우리의 이해가 반영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준비가 필요함.
  - 개인적 성과를 증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임기 내 미·북 관계가 예상 밖으로 순조롭게 풀릴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가 다양한 타협안을 준비해야 할 것임.

## 2)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시

- 바이든 신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국의 대중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보다 치밀해지고, 특히 전통적인 우방과의 연합 및 공조를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3)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참고(<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5/U.S.-Strategic-Approach-to-The-Peoples-Republic-of-China-Report-5.20.20.pdf>).

-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승인된 민주당의 정강정책(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에 기초해 볼 때 바이든 후보는 ‘외교 우선(Diplomacy First)’을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면서 기존의 전통적 동맹국과의 관계 복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미국 내 산업 발전 및 미국 중산층의 이익 증대로 연결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sup>4)</sup>
- 특히 바이든 후보는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 미국 단독의 힘보다는 ‘전통 우방과의 공조를 통한 접근이 그 영향력을 배가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미국의 부담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음.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문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보다 분명하게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관계는 큰 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정책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수단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더욱 빈번히 전통 우방국과의 공조를 활용할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일단 외교정책을 앞세우며 국무부에서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여 올라가는 bottom-up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음. 이를 위해 국무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언급하고 있기도 함.<sup>5)</sup>
-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미·중 갈등양상이 지금보다 더 격화되기보다는 양자간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수입에 대한 일방적 관세부과가 미국의 농민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어 양자 외교채널이나 협상을 통한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동시에 효과적인 대중 압박과 성과 도출을 위하여 전통적 우방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더욱 빈번하게 미국 중심의 우방국 공조그룹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보임.
  - ※ 예를 들어 지난 5월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와 같은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WTO 체제 개혁을 놓고서도 미국 중심의 선진국 그룹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음.
- 바이든 후보가 TPP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신행정부가 출범하면 대중국 견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아시아 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이 경우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아시아의 잠재력을 감안한다면 오바마 시절에 이어 제 2의 Pivot to Asia와 같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대선전략상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불가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CPTPP 확대나 제2의 TPP 추진, 인도·퍼시픽의 확대 등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자협상이나 국제공조체제 복원을 추진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제2의 Pivot to Asia와 같은 정책이 나올 수 있음은 어렵지 않게 예측됨.
- 바이든 후보는 WTO 다자체제의 유용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반면, 현 WTO 체제가 시대의 변화에 뒤처져 있다는 점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 WTO 체제의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음.
- 바이든 후보는 다자주의의 유용성, 특히 국제사회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미국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현재의 WTO 체제가 출범 당시와 크게 달라진 최근의 국제통상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WTO의 쇄신을 강조하고 있기도 함.

4) John Glenn(2020. 8. 13), "6 Foreign Policy Takeaways from the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https://www.usgic.org/blog/6-foreign-policy-takeaways-2020-democratic-party-platform/>.

5) 전계서.

-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참여와 추진이 예상되며, 중단된 다자무역협상이나 복수국간 협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는 국무부 중심의 외교정책을 우선시하고 있어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점진적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여,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미·북 간 관계가 급격히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임.

■ 이상을 종합해볼 때 트럼프 또는 바이든 둘 중 어떤 행정부가 출범하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단기적으로 부침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점진적으로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만으로는 한계가 예상되는바 우리의 국익에 기초한 중장기 원칙 정립이 필요함.

-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4년을 생각해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임. 따라서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익에 기초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외정책의 원칙을 시급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이러한 원칙은 국가의 생존이나 번영, 발전 등과 같이 어떠한 안보환경하에서도 지켜내야 할 가치로, 우리가 처한 특수성과 함께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세계적 보편성을 가져야 할 것임.

■ 국제통상질서의 경우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WTO 체제의 개혁 논의가 진전될 것이므로, 핵심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전 입장 정립이 필요함.

- WTO 체제 개혁은 사실상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관심사에 대한 논의는 일정 부분 진전이 예상되며, 이에 개도국지위, 산업보조금, 전자상거래 등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의 기본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KIEP